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상주백자 연구

A study on the white porcelain in Sangju focus on the literature data

주저자 : 김종태 (Kim, Jong-Tae)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1. 序 論

1-1 研究의 目的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尙州의 陶磁原料 및 陶磁生産의 地理的 · 歷史的 背景

2-1 尙州의 陶磁原料

2-2 尙州 陶磁生産의 地理的 · 歷史的 背景

2-2-1 陶磁生産의 地理的 背景

2-2-2 陶磁生産의 歷史的 背景

3. 結 論

참고문헌

(要約)

경북 상주지역은 조선초기에 왕실에 소용되는 상품자기의 절반을 차지하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연구가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상주지역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상주지역의 한국도자사적의 위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朝鮮時代 前期는 靑磁, 粉靑沙器, 白磁, 象嵌白磁, 靑畫白磁가 생산되었다. 세종의 명에 의하여 1424~1432년 『世宗實錄』 「地理志」가 편찬되었고 成宗代에는 司饗院의 分院이 설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욱이 조선왕조로 교체되는 격변의 상황까지 겹쳐 강진의窯業은 폐요되었고, 강진에서 종사하던 장인들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지역의 하나가 상주의 중모현 己未隈里와 湫縣里(세종 당시의 지명, 현 모동면)이다. 또한 性理學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백자제작에 필요한 원료의 조건을 갖춘 곳의 한 곳이 경상북도 상주지역이었으므로 강진의 장인들이 이곳으로 이동했으리라 사료된다.

『太宗實錄』에는 경상도 상주의 중모, 화령 등의 특정지역을 열거하면서 왕실소용기명 제작을 위해 중앙에서 감독관이 파견된 기록으로 보아 15세기 초의 상주의 자기 제작상황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추현리와 이미 외리를 언급하면서 상주의 자기제작의 위상을 짐작하는 기록이 언급되면서 전국의 상품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慶尙道地理志』에는 상주가 8곳으로 1/3의 자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慶尙道地理志』에는 『世宗實錄』 「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世宗實錄』 「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중·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東國輿地勝覽』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어,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전락하여 소규모화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early Joseon Dynasty is very important period of studying about Korean history of ceramics because various kinds of porcelain were produced like celadon, brown porcelain, white porcelain, inlaid white porcelain, blue porcelain etc, 『Sejongsilrok』 「Jiriji」 was published and Saongwon established its branch.

Moreover, there also had a sudden political change to Joseon Dynasty, so ceramic industry in Gangjin was closed and artisans in Gangjin scattered to find safer place. One of these place was Imiwueri and Chuhyunri, Joongmohyun in Sangju.(the name of the place in that times, now Modongmyun) Also, Sangju in Gyeongsangbuk-Do is one of the places where can get materials for producing white porcelain, so artisans in Gangjin could migrate to the place during change of regime to Joseon Dynasty which based on Sung Confucianism.

In 『Tejongsilrok』, it mentioned specific areas like Joongmo, Hwaryeong in Sangju, Gyeongsang-Do and we can find out about situations of ceramic production in the early 15 centuries with producing dishes for a Royal family. 『Sejongsilrok』 「Jiriji」 mentioned Imiwueri and Chuhyunri and Sangju produced the half of porcelains. In 『Gyeongsangdojiriji』, Sangju takes charge of 8 spots which is one third of ceramic production.

『Gyeongsangdojiriji』 and 『Sejongsilrok』 「Jiriji」 were published with same goals at the same year. In 『Gyeongsangdosokchanjiriji』, there was deleted nine spots which included high, middle, low level compared with 『Sejongsilrok』 「Jiriji」, and in 『Donggukyeojiseungram』 there was entirely deleted the locations of porcelain spots and potteries.

(Keyword)

『Goryeosa』, 『Tejongsilrok』, 『Sejongsilrok』 「Jiriji」, 『Gyeongsangdojiriji』, 『Gyeongsangdosokchanjiriji』

1. 序論

1-1 研究의 目的

朝鮮時代 前期는 靑磁, 粉靑沙器, 白磁, 象嵌白磁, 靑畫白磁가 생산되었다. 1424~1432년에 世宗의 명에 의해 『世宗實錄』, 『地理志』가 편찬되고 成宗代에는 司饗院의 分院이 설치되면서 도자생산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기제작 양상에 있어서는 조선 초부터 제작된 분청사기¹⁾가 世宗代에 이르러 기법이 다양해지고 특징이 뚜렷해져 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한편으로는 명 백자의 영향으로 조선 백자가 제작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1467~69년 사이에 京畿道 廣州에 설치된 分院에서 왕실 및 관아 소용의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으로써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磁器所·陶器所에서 왕실 소용의 자기로 공급되던 분청사기는 土產貢物에서 土產物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5세기 초기 분청사기는 기형과 문양, 태도와 유색 그리고 燻造²⁾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高麗에서 朝鮮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이며 武臣執權期, 對蒙抗爭期, 元의 干涉期, 서해안 일대 왜구의 침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窯業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주변의 국내의 환경에서 더 이상 오염의 한계를 느낀 匠人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 전국으로 흩어진게 아닌가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하에 性理學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백자제작에 필요한 원료의 조건³⁾을 갖추어진 오염환경과, 강진보다 안전한 지역을 찾아 이동한 곳의 하나가 경상북도 상주지역의 중도현 己未隈里와 湫縣里(세종 당시의 지명, 현 모동면)라고 사료된다.

세종의 명에 의해 1424~1432년 사이에 기초 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8도의 자기소 139개소와 도기소 185개소가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품질이 上·中·下品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중 경상도에 도기소 28개 지역에 34개소, 자기소 29개 지역에 37개소로 총 71개소, 경기도 24개소, 충청도 61개소, 전라도 70개소로 표기되어 있다. 상품자기로는 경기도 廣州의 伐乙川 1개소, 경북 高嶺의 曳峴里 1개소, 尙州의 楸縣里와 己未隈里 2개소가 조사되어 있어 전국의 상품자기 생산의 절반을 상주에서 생산하였던 곳이다.

尙州는 많은 窯址와 더불어 世宗代에 上品을 생산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현재 상주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사학 측면의 연구⁴⁾와 분청사기의 도자사학적 측면의 연구⁵⁾가 있다. 본 논문은 조선전기의 문헌사료를 통한 역사적 위치와 도자사적 의의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현재까지 조선시대 백자에 대한 연구는 관요백자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요에 관한 연구⁶⁾로는 사료와 명문 등의 미 출토로 인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999년에 상주 청리와 성동리의 조선시대 무덤에서 15세기~17세기에 걸쳐 생산된 분청사기류와 백자류의 대접·접시·완 등이 출토⁷⁾되었다. 특히 변조나 시유 등에서 뛰어난 유물이 많지 않은 가운데 청리유적의 무덤출토 분청사기는 그 중에서 수작임을 볼 때 상주지역의 인근 요

1) 粉靑沙器란 粉粧灰靑沙器의 준말로, 철분이 많은 陶土로 만든 그릇의 표면에 백토로 분장을 한 자기를 말한다. 이 분장기법은 현대어로 엔고베(Engobe)의 일종으로, 서양에서는 18세기에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6백여 년 전에 만들었다 [宋在慶: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東文選, 126-127, (2003)].

2) 燻造라는 용어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燒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여러 사료의 예를 따라 번조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실례를 소개해본다.

『世祖實錄』, 卷 39, 12年 6月 丙午條.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 燻造者外 自今公私 買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世宗實錄』, 卷49, 12年 8月 6日 甲戌, “各官未知 邊豆簋簠鎗銅尊罍 俎站爵簋等 祭器之制 妄意造作 未得精潔 宜以奉常寺諸色祭器 分送各道 見樣鑄成 又造藏祭器庫 令壇直看守右條 依所申施行 其鑄器 姑以磁器燻造 從之”

『承政院日記』, 50冊, 仁祖 13年 11月 19日. 司僉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留在分院匠人 受食於外方匠人價布乃糊口 此後若無所食之資 皆必散去 明年所用價布 今年十一月捧之 可及於明春燻造之用...”

『承政院日記』, 355冊 肅宗 20年 2月 10日條. “權珪 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沙器五百七十二竹 有別燻之學 楊口白土 一年所掘 僅用於一年燻造而無餘 以其容入白土 更爲掘取以來 然後可以造成 問于邊兵匠人 則掘取三百名可用云 而三百石 亦不必盡數掘來二百名 分付本官 掘取上送 而掘取之時 邊兵匠人一名 下送何如 傳曰 允”

同 360冊 肅宗 22年 7月 13日條. “司饗院啓曰 本院年例進上沙器 有春秋兩等而晉州白土二百五十石船載之後 沒數致敗 楊口白土五百石及前前用餘之土一百五十石 以此兩等進上 預爲推移燻造矣 今番嘉禮時 各樣器皿加燻內人之數 至於六百餘竹 秋等所用白土量有二百石 不足之數 所當趁期掘來 而當此大役之餘 農時役民 其弊不貲 辛亥年則秋等燻造因年凶停止 而莫重御用 亦難盡數停廢 今番秋等進上 元數內減半燻造 恐或便當 敢此仰稟 傳曰 依爲之”

『備邊司謄錄』, 第58冊, 肅宗 33年 2月 2日. 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舊規 外居燻造匠人身役 例捧三疋 ...

『古今窯辨證說』, “正廟朝 禁書彩燻造後於白瓷上陽刻 作花卉凸起燻出矣”

『日省錄』, 純祖34年 1月 22日. “...廣州良人 表光勳等 以分司饗院燻造所用白土事 一村將至澳散 乞依並江例 收稅於南江 商船事也”

『日省錄』, 哲宗元年 4月 16日. “...廣州良人 金成奎等 分司饗院燻造所用 依水白土掘取事 一村將至澳散...

3) 尙州地域은 화강편마암 지대로 陶磁器를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화강편마암의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화강암질 구조이다.

4) 金世光: 『傳統陶磁手工業의 經營形態에 관한 實證的 研究』, 嶺南大 經濟學科 博士學位論文, 12, (1997).

5)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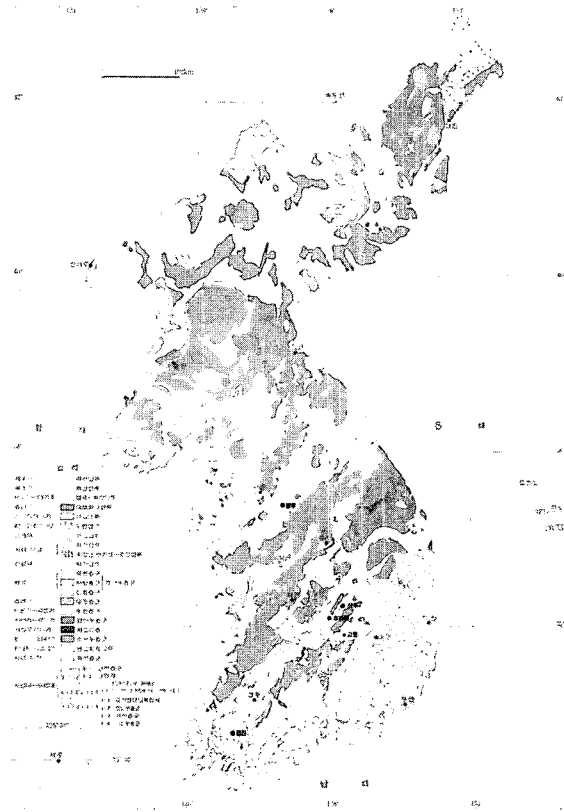
6) 崔允貞: 『朝鮮 17~18世紀 前半 地方白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 (2004); 김원원: 『分院 官窯와 地方窯』,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京畿道博物館, 25-52, (2001); 전승창: 『조선시대 백자 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陶器고고학을 향하여』, 한국상고사학회, 4, 101-103, (2003); 장기훈: 『분원과 지방백자의 관계 시고·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조선관요박물관 학술 세미나-조선의 도자문화와 관요의 의미』, 조선관요박물관, 69-88 (2003).

7) 국립대구박물관: 『尙州 嶺南 文物의 結晶地』, 통천문화사, 117, (2003).

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분청사기와 백자가 상주의 도자생산의 역사적 배경을 『高麗史』,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등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圖 1] 韓國의 地質圖¹¹⁾



2. 尙州의 陶磁原料 및 地理的 · 歷史的 背景

2-1 尙州의 陶磁原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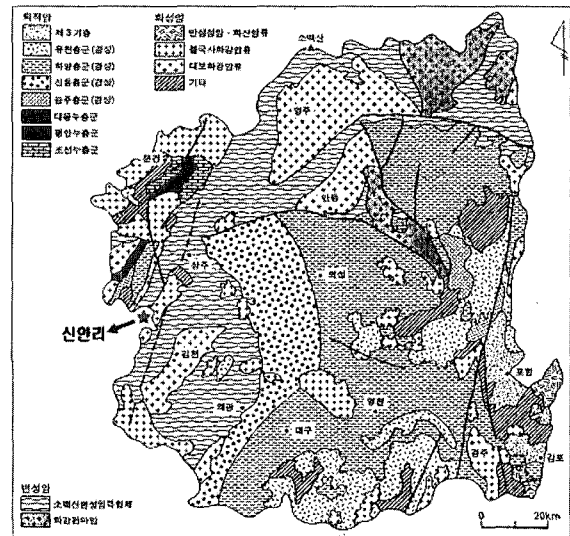
상주의 서쪽은 소백산맥이 뻗어 영남과 강원·호남·호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낙동강 상류를 따라 분지와 저지가 발달된 西高東低의 지세를 이룬다. 청리면·공검면·공성면·낙동면에는 비교적 넓은 들판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산간지대이다.⁸⁾ 水系는 크게 금강 및 낙동강수계로 구분된다. 금강수계는 石川이 화동면에서 발원하여 潘溪川을 合水해 錦江에 유입되고, 낙동강 수계는 利安川이 속리산 남쪽에서 발원해 문경에서 남류한 潁江과 합쳐져 洛東江에 유입된다.⁹⁾ 이처럼 상주는 낙동강유역의 발달된 농경문화와 낙동강을 이용한 수운과 소백산맥을 통한 육로가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국내의 정치·경제·군사적 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상주의 지질구조는 소백산지괴에 속하며 개마지괴·경기지괴와 더불어 Cambrian(약 6억 년전)이전에 형성된 가장 오래된 육괴중의 하나이다. 기반을 이루는 것은 편암류이며 이들이 화강암화된 준편마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片麻巖과 화강암으로 대체로 높은 곳의 산릉은 편마암이고, 분지의 낮은 지역에는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고생대 이전에 한반도의 대부분이 형성되어 초기의 형태가 잡혀졌음을 의미한다. 상주의 동부일대에는 화강암질 편마암이 넓게 분포해 있고 서부에는 편마암류가 중생대 퇴적암층에 피복되어 있다. 낙동강이 흐르는 곳은 변성암지대와 중생지대이며 퇴적암의 지질경계를 따라 흐르고 있다. 특히 [圖 1·2]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주는 소백산 변성암복합체지역에 해당하며 변성퇴적암의 잔류물의 길이는 수 센티미터의 소규모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의 것이 있다. 이들의 구성광물은 도자기 제조에 필수적인 석영, 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는 도자원료 확보에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변성암의 분포면적은 국토의 약 50%를 차지하고 육괴를 중심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하며 주요 구성암석은 편암, 결정질 석회암, 규암, 호상 편마암 등이다. 변성암은 수성암 또는 화성암이 땅질 깊은 곳에서 온도, 압력의 변화나 화학적 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된 암석이다¹⁰⁾.

[圖 2] 경상북도의 지질



변성암은 접촉 변성암과 광역 변성암으로 나뉘어지는데, 접촉 변성암은 세일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혼펠스, 석회암이 접촉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암, 사암이나 처트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규암으로 된다. 그리고 접촉 변성암에는 엽리, 편리, 편마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광역 변성암에는 세일이 광역 변성작용을 받으면 변성 정도에 따라 슬레이트→천매암→편암→편마암으로 되

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靑里遺蹟發掘調查概報』 II, 3, (1997).
 9) 『尙州市·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尙州市 文化遺蹟分布地圖』, 16, (2002).
 10) 국립대구박물관: 『尙州 嶺南 文物의 결집지』, 통천문화사, 140, (2003).

11) <http://sseng.net/geo4u/geol/geolmap/geolmap.htm>.

며 석회암이 광역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암, 사암이나 처트나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석영·편암·규암으로 된다[표1].

[表 1] 變成岩의 分類¹²⁾

원래 암석	변성작용	엽리	변성암
			작다 ← 변성 정도 → 크다
세일	접촉 변성 광역 변성	없음 발달	혼펠스 슬레이트 → 천매암 → 편암 → 편마암 규암
석회암	광역 변성	없음	대리암
현무암	광역 변성	발달	녹색 편암 → 각섬암 → 편마암
화강암	광역 변성	발달	화강 편암 → 화강 편마암

이들 지역으로는 해산, 풍서, 안주, 순천, 고산, 안변, 간성, 양구, 춘천, 수원, 태안, 보은, 단양, 울진, 영주, 금산, 진주, 의성 등의 지역이 있다. 화강 편마암지역은 무산, 명천, 장진, 해주, 개성, 포천, 양양, 천안, 상주, 남원지역 등이 있다.

그러면 磁器의 원료가 되는 점토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자.

점토는 암석의 풍화로 생성되는데, 그 과정은 광물의 結晶 구조와 관련하여 알 수 있다. 점토는 기후, 배수조건, 염기성 물질의 과다 등에 의한 암석의 풍화 과정에서 長石, 雲母, 石英 등 일차 광물이 화학적으로 瓦解되면서 생성되는 이차적인 광물이다. 이와 같은 粘土는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직경 2micron 이하의 광물성 입자를 말하며, 이들이 많이 함유된 흙을 점토질 토양이라고 한다. 점토는 保水力이 높으며 수분 透過 및 排水가 잘 안되므로 이들을 많이 함유한 토양은 비가 내린 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수분을 함유한다. 그리고 점토는 수분이 함유된 상태에서는 可塑性(plasticity)이 좋고 液性이 높게 된다. 따라서, 점토는 물로 반죽하면 쉽고도 정교하게 성형할 수 있는 물리적 특색이 있다.

2-2 尙州 陶磁生産의 地理的 · 歷史的 背景

2-2-1 陶磁生産의 地理的 背景

상주는 장석과 규석이 함유된 변성암복합체의 지대로서 백자를 생산하기에 좋은 천연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14세기 후반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해 가던 시기에 질 좋은 원료가 있는 상주에서 “상품백자”를 제작했던 일은 우연이 아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전국에서 상품자기를 제작했던 곳이 광주 벌을천, 고령 예현리, 상주의 이미의리와 추현리의 네 곳이 조사되어 있다. 이 중에 상주의 두 곳에서 상품자기를 생산했다는 것은 상주 백자제작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상품백자의 제작은 1467~1469년 경기도 광주가 관요백자

생산의 중심이 된 이후로는 상주의 백자제작 의무는 약화된 반면에 지방백자 생산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이후 사회, 경제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어려웠던 경제는 17세기 大同法¹³⁾ 실시로 새로운 경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貢人이라는 중간상인이 출현하였다. 즉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반 물품은 중간상인인 貢人을 통해 구매했고 貢人은 직접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의 조선사회의 일 면모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도자기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고 17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백자가 마가 상당수 늘어난 현상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므로 17세기 이후 백자의 발달은 생산과 함께 유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류의 유통은 지리적 조건 즉 교통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상주가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고려 충혜왕4년(1343)의 安軸의 「客館記」에 “이 州가 팔방으로 통달하는 거리에 있어서 傳令과 奉使하는 자가 하루도 비는 날이 없었다.”¹⁴⁾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 尙州가 팔방으로 통달하는 거점지역이었기 때문에 생산물이 중앙은 물론이고 각 지방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여건을 고려시대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조선 成宗18년(1487) 金宗直의 「風泳樓重修記」에 “상주가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監司의 本營이 되었으니 실로 동남방에서 제일 큰 도회지이다. 使命을 받고 政事를 담당하는 손님과 일본에서 朝貢하는 使臣들의 來往이 줄을 이어 連續하는데 竹嶺(문경새재)을 넘는 자는 3분의 1도 안되고 모두 冠縣(현 문경)을 경유하니 尙州는 그 폭주하는 가운데 들어있다.”¹⁵⁾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상주는 큰 도회지이며 京都(서울)로 통하는 연결지로서 각처에서 모여드는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이런 이유로 상주는 대내외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문경새재를 경유하여 한양(서울)으로 향하는 경로 가운데 들어있었던 상주는 항상 상인들이 폭주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도자가 장시로서 혹은 교역상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15세기부터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3) 大同法이란 17세기 초엽 재정개혁을 위해 시작되지만 18세기 초엽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원 장인제에 대한 변화도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맞추어 17세기 말경에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方炳善: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8, (1997)].

14) 安軸(1282-1348), 「客館記」, 『商山誌』: “也州在八達之衝承傳奉使者無處日”, 「客館記」는 安軸의 史實記錄이다. 당시 그는 尙州의 목사로 부임하여 이 지역에서 느끼고 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15) 金宗直(1431-1492), 「風泳樓重修記」, 『商山誌』: “尙處洛水之上游本營實東南一大都會也 皇華賦政之費日域獻(중략)由竹嶺者不能三之一而率由冠縣州當輻輳之交(생략)” 尙山은 尙州의 舊號이고, 『商山誌』는 조선 선조48년(1605)에發文되고 후기에 이르러 발간된 鄉土史記이다.

12) 이문원 외 5명: 『고등학교 지구과학』 II, 금성출판사, 63, (2002).

『擇里志』¹⁶⁾는 조선후기의 실학적인 학풍을 바탕으로 영조 27년(1751)에 李重煥이 저술한 인문 지리서로서 「卜居總論」의 경상도 상주조에 “尙州는 일명 낙양이라 부르며 조령아래 있는 제일 큰 도회지이다.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 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임해서 김해, 동래와 통한다. 말(馬)을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배(船)에 실어 나르는 길이 남북으로 통하여 수륙교통의 집합지가 되었으니 이것은 무역하기 편리한 까닭이다.”¹⁷⁾

상주는 인접한 지역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찍부터 외부 수요자들이 상주와 연결된 교통로를 따라 磁器는 지방의 市場에서 유통되었을 것이다. 지방의 시장은 주로 5일마다 열리는 定期場市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전부터 계속되는 흉년으로 농민은 살 길이 막막해 지자 시장에 상점을 열어 상업으로 전환하는 인구가 늘게 되었다. 15세기 말부터 定期場市를 常設市場화 하자는 여론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조선왕조는 市場禁壓政策을 펴왔다. 16세기에 오면 상업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지방에 새로운 장이나 場門이 많아졌다.

이렇게 시장의 수가 증가해 가고 상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17세기에는 점차 정기시장이 상설시장화 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8~19세기 전반의 각종 기록에 등장하는 전국의 시장 수가 1천개소를 넘고 있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기장시의 상설시장화 외에도 일정한 지역권 내에서 날짜를 달리하면서 정기장시가 번갈아 열려 한 달에 20일 이상 장을 볼 수 있는 형태도 생겨났다는 것을 볼 때 당시의 활발한 생산과 교역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지방백자는 각 지방의 시장에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판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여러 기록을 통해볼 때 상주의 대외적인 교역로는 북쪽으로 상주→ 문경→ 조령→ 남한강→ 한양(서울)으로 이르는 길과, 남쪽으로 상주 낙동(洛東津)→ 김해→ 동래로 통하는 천혜적인 유통로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2 陶磁生産의 歷史의 背景

2-2-2-1 조선전기 도자생산의 역사적 배경

조선전기에는 전반적으로 청화백자와 철화백자의 생산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질의 백자는 질이 떨어지고 조질백자는 태토비짐이 남아 있으나 오목굽으로 대체되어 갔다. 기형의 굽은 직접내경하고 내저원각이 있으며 외반된 구연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형은 15·16세기의 조선전기양식을 띠면서 다소의 변화를 보인다.

상주의 도자생산의 역사적 배경은 『高麗史』, 『太宗實錄』,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등의 「所」와 관련된 기록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국내의 학자들의 「소」의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金銀 등을 만들기 위하여 두었던 기관으로서 여기서 일하는 工匠들은 죄인 또는 천민의 집단이었다.”¹⁹⁾라고 하였고, “「所」는 본래 신라의 部曲에서 기원한 것이며 특산물의 생산자 층으로 구성되었고 신분적으로 낮았던 천인들의 집단이었다.”²⁰⁾ 또한 “「所」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분적으로 천인에 속해있었다. 그들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특산물 생산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관리 하의 「所」 수공업자는 고려시대에는 광범위하게 각지에 설치되었으나 민간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그 수는 점차 감소되었다.”²¹⁾라는 견해와 “고려 봉건왕조에 항거한 고장의 주민들은 「所」에 이주시켰고 또한 반란을 일으킨 고장에 대해서는 징벌조로 일반 군 현보다 격이 낮은 소나 부곡으로 격하시켜 그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천민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소의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차별대우를 받으며, 가혹한 수탈을 당하였다.”²²⁾라는 견해를 피력 하였다.

이상은 학자들의 「所」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所」와 상주의 도자관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① 「高麗史」

『高麗史』 권78, 食貨志1, 貢賦條의 睿宗三年(1108) 二月判에 “경기주현은 常貢외에 요역이 너무 많고 과중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날이 갈수록 도피처를 찾아 떠나니, 주관할 所司는 계수관에게 공역(常貢+徭役을 말함)의 많고 적음을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배정 시행토록 하라. 동·철·자기·목·종이 등을 생산하는 雜所에서는 別貢物色을 징수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장인들이 견디다 못해 도피하는 자가 많으니, 바라건대 所司는 각 所별로 別貢과 常貢의 많고 적음을 배정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²³⁾

위의 사료는 1108년에 瓷器所의 匠人들이 別貢物色을 過極徵收함으로 인해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으로써, 所는 이미 12세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조선전기의 상주의 도자제작에 관해서는 『太宗實錄』·『慶尙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續撰地理志』 등을 통하여 花器와 陶磁所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16) 李重煥(1690-1756), 『擇里志』, 朝鮮光文會新文館, 明治四十五年.

책의 구성은 「四民總論」: 사농공상의 유래, 사대부의 역할과 사명, 사대부가 살만한 곳 서술, 「八道總論」: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그 위치와 역사적 배경 서술, 「卜居總論」: 주거지에 대해 입지조건을 설명.

17) 李重煥, 위의 책, “尙州一名洛陽 嶺下一大都會也 (중략) 北近烏嶺 通忠淸京畿 東臨洛東金海東來 馬運船載而南北 水陸徒集 便於貿…”

18) 姜萬吉: 「市場과 商人」, 『韓國史 市民講座』 제9집, 一潮閣, 22-27, (1991).

19) 李弘植(編): 『國史大辭典』, 知文閣, 1705, (1963).

20) 崔虎鎮: 『訂正增補 韓國經濟史』, 博英社, 110-111, (1991).

21) 조기준: 『한국경제사신강』, 일신사, 152-153, (1995).

22) 金玉根: 『韓國經濟史』, 圖書出版民族文化, 142, (1995).

23) 『高麗史』, 卷78, 食貨志1, 貢賦條

睿宗三年(1108) 二月 “京畿州縣 常貢外 徭役頗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 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 配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苦 而逃避 仰所司以其各所別 常貢物多少 配定奏裁”

② 『太宗實錄』

『太宗實錄』太宗 11년(1411)에는 中牟縣과 化寧縣에서 각각 花器가 생산되고 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는 15세기 초에 상주지역에서 제작한 화기 즉 화분²⁴⁾이 왕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자기였음을 말해주므로 당시에 자기제작 배경과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를테면, 『太宗實錄』太宗11年(1411) 4月 己未條에 “內暨 安和尚을 慶尙道 中牟, 化寧 등의 縣에 보내어 花器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²⁵⁾라는 기록이다. 內暨 安和尚의 소속관직과 이러한 감독 제작형태가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왕실의 소용기명 제작을 위해 중앙에서 감독관이 파견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慶尙道 중모, 화령 등의 縣이라고 특정지역을 열거하면서, ‘花器’라고 하는 특정기명의 제작을 지목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특정지역에서 왕실용으로 채택된 특정기명이 제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太宗 17年(1417) 12月 辛丑條에는 ‘花器’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命하여 各道에서 花器를 바치는 것을 정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尙林院의 花器는 짐이 무거워서 먼 지방에서 가져오기 어려운 물건인데, 每年 進貢하는 것이 편치 않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特旨가 있지 않으면 상납하지 말고 백성의 힘을 너그러게 하라.”²⁶⁾

위의 두 기록은 15세기 초의 상주의 자기 제작상황의 일면이다.

③ 『世宗實錄』 『地理志』

『世宗實錄』 『地理志』는 단종 2년(1452)에 편찬되나,²⁷⁾ 世宗의 命에 의해 1424~1432년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454년 『世宗實錄』의 편찬과 함께 간행된 것이다.²⁸⁾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의 분포현황에서 경상도의 경우, 자기소의 상품이 세 곳이고 이 중에 두 곳이 상주의 추현리와 이미외리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기술한 바이다. 추현리와 이미외리의 현재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상주의 당시의 자기제작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表 2] 『世宗實錄』 『地理志』 8道の 磁器所·陶器所 분포 현황²⁹⁾

분류	磁器所					陶器所				
	上	中	下	표시	합계	上	中	下	표시	합계
지역	品	品	品	없음		品	品	品	없음	
京畿	1		13		14		6	12	2	20
忠清		12	11		23		6	31	1	38
慶尙	3	8	26		37		6	28		34
全羅		15	12	4	31		8	23	8	39
江原		2	2		4			10		10
黃海		6	6		12		6	11		17
平安		2	11		13		1	10	1	12
咸吉			5		5			6	9	15
합계	4			4	139		33	130	22	185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磁器所·陶器所 324개 중 慶尙道の 자기소 37기중에 上品은 3곳, 中品은 8곳, 下品은 26곳이다[表 2]. 위의 기록에서 주의하여 볼 것은 上·中·下品の 구분이다. 전국에서 上品을 생산하였다고 기록된 곳은 네 곳으로서 京畿道 廣州 벌을친, 慶尙道 尙州 이미외리와 추현리, 高靈의 예현리이다. 상주는 두 곳에서 上品을 생산했다. 이들의 현재 추정지명은 다음과 같다[表 3].

[表 3] 『世宗實錄』 『地理志』의 上品窯址 推定

區分	『世宗實錄』 『地理志』 지명	現在 추정지명	生産品	備考
1	京畿道 廣州 牧州東 伐乙川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번천리	象嵌·印花분청사기, 백자	
2	慶尙道 高靈 縣 縣東 曳峴里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동	象嵌분청사기, 백자	
3	慶尙道 尙州 牧 中牟縣 北 楸縣里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화현리?	象嵌印花분청사기, 백자	추정
4	慶尙道 尙州 牧 中牟 東 己未隈里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어산리?	象嵌·印花분청사기	추정

세종시대의 중모현은 상품자기를 생산하던 곳이므로 中牟縣의 위치에 대한 고증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자.

『新增東國輿地勝覽』 尙州牧³⁰⁾에는 동쪽으로 비안현 경계까지 67리, 남쪽으로 선산부 경계까지 39리, 동부 경계

24) ‘花器’를 青花白磁의 異稱(白磁青花, 青花磁器, 青華磁器, 青華沙器, 靑白白磁器, 白磁青靑, 靑磁器, 靑沙器, 花器, 靑器, 彩磁)으로 보는 견해[이상기: 조선전기의 총화백자,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1984)]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太宗實錄』: 卷 34, 17年 12月 辛丑條 나타나있듯이 1411년에는 국내에서 청화백자가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분청사기 혹은 백자?로 추정하였다.[田勝昌: 『15世紀 磁器所 考察(1) -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1號, 湖巖美術館, 30-31, (1996). 여기에 대해 『태조실록』: 태조3년 7월 무신조의 기록과 『세종실록』: 세종 7년 12월 경오조의 기록을 들어 ‘花器’는 자기 또는 도기로 만든 花盆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경자: 『분청사기 명문 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86, (2005)].

25) 『太宗實錄』: 卷 21, 11年 4月 己未條. “遣內暨安和尚 于慶尙道中牟化寧等縣監做花器”

26) 『太宗實錄』: 卷 34, 17年 12月 辛丑條. “命停各道花器之貢 上曰尙林院花器負重遠方難致之物 每年進貢未便 自今以後 非有特旨勿令上納以寬民力”

27) 『世宗實錄』의 부록인 『地理志』에는 각 지방의 토산품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土產條에 보면 토산품물을 제작하고 있던 관아를 중심으로 그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磁器 및 陶器의 제작수준을 상·중·하로 기록하고 있다.

28) 鄭杜熙: 『朝鮮初期地理志의 編纂(1)』, 『歷史學報』: 第69輯, 歷史學會, 66-83, (1976).

29) 姜敬淑: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306, (2000).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8, 尙州.

까지 40리, 금산부 경계까지 47리, 서쪽으로 충청도 보은현 경계까지 70리, 북쪽으로 함창현 경계까지 29리, 서울까지 47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³¹⁾ 당시 상주의 땅이 얼마나 광대한 지역이었는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尙州라는 명칭은 757년(경덕왕 16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983년(성종 2년)에 尙州牧으로 전국 12목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이후 1413년(태종 13년) 상주목이 전국 20목 중의 하나로 설치되었고, 1601년(선조 34년) 상주에 있던 監營이 大邱府로 이관되었다. 1895년 5월 26일(갑오경장) 상주목이 상주군으로 개편되었고, 1914년 4월 1일 상주·함창이 통합되었으며, 1986년 1월 1일 상주시·군이 분리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상주시·군이 상주시로 통합³²⁾되었다.

선조 38년(1605)에 發刊된 『尙山誌』에는 중모현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내용에 의하면, 중모는 원래 신라때 刀良縣이었는데, 경덕왕이 도안이라 개명하여 화령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때 상주에 속하게 하였으니 사오십리나 된다³³⁾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신라시대 때 중모가 화령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土產條³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소가 셋이니, 하나는 중모현 북쪽 추현리에 있고 상품이다. 하나는 중모현 동쪽 이미외리에 있고 상품이다. 하나는 공성현 서쪽 원동에 있다. 중품이다. 도기소가 둘이니 하나는 주 서쪽 벌을야리에 있고, 하나는 단밀현 단곡에 있다. 모두 하품이다” 라는 내용이다. 『世宗實錄』 「地理志」 외에도 『慶尙道地理志』에 중모현이 소개되고 있으며,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도자기소 위치가 “中牟縣 奴山里品中”으로 추가 소개된다. 이것은 『世宗實錄』 「地理志」와 『慶尙道續撰地理志』의 편찬년도를 고려해 볼 때, 노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아쉬운 점은 기록된 「北楸縣里」와 「東已未隈里」는 現地名과 일치하지 않으나 수습된 출토유물을 살펴 보면서 추정해 보기로 한다

「北楸縣里」로 추정되는 花峴里는 모동 면사무소에서 나침반을 보면 북쪽에 위치한다. 입구 좌우에 번조에 사용된 도지미가 산포되어 있고 위쪽 좌우에는 백자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다. 『世宗實錄』 「地理志」의 一在中牟縣 北楸縣里品上으로 되어있지만, 수습한 유물로 추정해보면 16세기로 추정된다. 『世宗實錄』 「地理志」에 해당되는 시기는 15세기 초이므로 이곳 일대 어디에서인가 15세기 초에 해당하는 유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울러 이 일대가 世宗代의 북추현리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 화련리 요지는 행정구역상의 상주군 모동면에 속해 있으며 모서면의 접경지역에 위치한다. 요지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

면 얇은 언덕에 위치하며 앞쪽방향에는 풍부한 용수가 흐르고 있다. 요지주위에는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시목에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산림이 우거져 있다. 특히 요지 밑부분 좌측 논에서는 용수개발의 목적으로 5m정도의 깊이로 파서 물을 공급중인데 파헤쳐진 토양을 살펴보면 회백색이다. 아마도 이 태토로 자기를 성형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또한 입구에는 경작과 소로길로 인해 유적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수많은 자편들이 산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뚜렷한 가마터의 흔적이 있는 윗부분 2기만을 포함시켰다.

다음은 「東已未隈里」라고 추정되는 어산리 요지를 살펴보자. 어산리는 행정구역상 화동면에 속해있으나, 어산리라고 추정되는 「東已未隈里」³⁵⁾는 古書나 文獻記錄 등에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³⁶⁾, 『尙山誌』³⁷⁾ 등의 기록에 의하면 어산리는 당시 중모현에 소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中牟縣은 현재에도 중모면으로 中牟名과 동일하다. 현재의 중모면 사무소에서 나침반을 보면서 10리 즉, 4km를 가다보면 화동면 어산리 2요지로 명명된 가마터에 도달한다. 이 곳이 一在中牟 東已未隈里 上品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곳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의 근거는 양질의 분청사기라는 점인데 향후 자세한 연구가 요망된다.

다음의 표는 문헌기록에 보이는 상주목 자기소의 현황이다[表 4].

31)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IV, 卷 28 尙州牧, 48.
 32) 국립대구박물관: 『尙州 嶺南 文物의 결절지』, 통천문화사, 10, (2003).
 33) 상주문화원: 『尙山誌』 卷之一, 中牟本新羅刀良縣景德王改名道安屬化寧高麗改名來屬在州西五十里. 3, (2003); 상주문화원, 『尙州史料集』, 607, (1998).
 34)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土產條磁器所三 一在中牟縣 北楸縣里品上 一在中牟 東已(已)未隈里品上 一在功城縣 西院洞品中 陶器所二 一在西伐乙夜里 一在丹密懸丹谷皆品下.

35) 「己」字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의 원전을 돈보기로 확대해보면, 「己」字가 더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東已未隈里」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八에 의하면 상주의 鎭官으로는 상주목, 선산부, 금산군과 개령·지례·고령·문경·함창 등 5개 군이다. 중앙에서 파견된 상주목의 관원은 牧使 1명, 判官 1명, 敎授 1명이며, 상주의 다른 이름은 上州, 上落, 沙梁伐, 沙伐, 商山, 陲阿, 歸德軍 등이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팔방으로 통하고 있어 동남방 일백 고을중에 으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尙州 嶺南 文物의 결절지, 통천문화사, 145, (2003).]
 37) 『尙山誌』는 1617년(광해군 9) 목사 (康復誠 : 1550-1634)의 후원을 받아 편찬을 시작하여, 뒤를 이은 丁好善 : 1571-1632) 때에 2권으로 간행된 책이다. 읍지 본문은 크게 輿地, 貢賦, 學校, 秩祀, 官制, 公署, 名宦, 人物, 古蹟 등 10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항목 중간에 '按'을 적어 자신이 고증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권말에 부기된 『書尙山誌後』에는 '상주는 산수가 빼어나고 인제가 많이 배출되었는데도 이를 상고할 수 없는 읍지가 없자, 이를 안타까이 여긴 강복성과 정호선 등이 중심이 되어 『여지승람』과 각종 雜誌를 참고하여 綱目을 구비한 이 읍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국립대구박물관: 尙州 嶺南 文物의 결절지, 통천문화사, 149, (2003); 상주문화원, 尙山誌, 2003; 상주문화원 尙州史料集, 상주문화원, (1998)].

[表 4] 문헌에 보이는 尙州牧 磁器所의 현황³⁸⁾

區分	磁器所				陶器所			
『太宗實錄』 1411년	中牟縣		花器					
	化寧縣		花器					
『慶尙道 地理志』 1425년					牧官			
	中牟縣				中牟縣			
	功城縣				丹密縣			
『世宗實錄』 『地理志』 1424~1432					州西 伐乙夜里			
	中牟縣	北	楸縣里	上品				
		東	已未隈里	上品				
					丹密縣	丹谷		
功城縣	西	院洞	中品					
『慶尙道續撰 地理志』 1469년					尙州牧	西	下品	
	中牟縣		蘆山里	中品	伐乙夜里			
『東國輿地 勝覽』 1478~1486								

④ 『慶尙道地理志』

『慶尙道地理志』는 그 序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락 22년 갑진년 겨울 12월 초하루 임인시에 춘추관이 경상도 주부현에서 가르침을 받다. 역대관의 이름. 연혁에서 이합에 이르기까지 호조로 하여금 각도로 관을 옮기고 하고……을사년 겨울 12월 초하루 병인시에 감사 진양하씨 연연량이 기록한다.”³⁹⁾

永樂 22년이라 함은 世宗 6年(1424)을 말한다. 즉 『慶尙道地理志』도 『世宗實錄』 『地理志』와 동 연대에 자료를 수집하고 찬술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戶曹에서는 각 도에 『慶尙道地理志』의 찬술요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고 있다.⁴⁰⁾

“의례에 따라 복정공부라는 공안에 어떤 토산물이 어느 땅에서 나오는지 이와 같이 시행하라. 산출되는 것이 금·은·철·동……자기·도기……모두 상세히 일을 시행하라.”⁴¹⁾

여기서 「卜定貢賦」란 「貢賻詳定都監」⁴²⁾에서 작성한 「貢案」이지만, 그 貢案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토산물(某某物)이 각 州, 縣에서 생산되고 어떤 종류의 토산공물을 수납

38) 田勝昌: 「15世紀 磁器所 考察(1) -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湖嶽美術館 研究論文集』 1號, 湖嶽美術館, 32 재인용, (1996).

39) 『世宗實錄』 卷二十六, 六年 十一月 丙戌條. “永樂 二十二年 甲辰冬 十有二月 朔壬寅 春秋館受教慶尙道州部縣 歷代官號 邑名沿革及離合 令戶曹 移關各道…… 乙巳冬十有二月朔日丙寅監司 晉陽河淵演亮識”

40) 貢賦 戶口 錢糧 食貨 등을 관장하는 중앙관서를 말함.

41) 『慶尙道地理志』 慶尙道 慶州牧條. 一依例卜定貢賦 某某物 其土所山 某某物 是如施行爲乎矣 土產 金銀鐵銅 …… 磁器·陶器 …… 并以詳悉施行事

42) 太宗 元年(1392)에 각 지방 특산물의 貢賦를 책정하기 위해 설치한 監視官衙로 태종 원년에 공안을 완성하였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낱낱이 수록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찬술된 지리지의 토산공물조에 보면 경상도의 도자기 토산품물의 수납비교표에 나타난 숫치를 보면, 자기는 상주가 8곳으로 1/3의 자기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表 5] 『慶尙道地理志』 陶磁器 土產品物 收納 比較表⁴³⁾

品目	磁器				沙器				陶器				府郡牧縣 小計		
	府	郡	牧	縣	府	郡	牧	縣	府	郡	牧	縣			
慶州道	2	2	-	3	7	-	2	-	2	1	2	-	1	4	13
安東道	1	1	-	2	4	-	-	-	1	1	1	-	4	6	11
尙州道	1	2	1	4	8	-	-	-	0	1	2	2	6	11	14
晉州道	2	2	1	-	5	-	-	-	0	-	-	1	1	2	7
計	6	7	2	9	24	-	2	-	1	3	3	5	3	12	23

또 도기는 역시 23곳 중 11곳에서 도기를 담당하고 있어 45%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주가 도자기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5]. 또한 토산물품의 지역별 수납현황에서도 상주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표 6].

[表 6] 『慶尙道地理志』 陶磁器 土產品物 地域別受納現況⁴⁴⁾

磁器別道別	磁器	沙器	陶器	備考
慶州道	慶州府 密陽郡都護府 梁山郡 蔚山郡 慶山縣 昌寧縣 靈山縣	興海郡 彥陽郡	密陽郡都護府 蔚山郡 淸道郡 解顔縣	13個所
安東道	順興都護府 永川郡 仁同縣 義興縣	義城縣	順興都護府 醴泉郡 盈德縣 仁同縣 義興縣 新寧縣	11個所
尙州道	中牟縣 功城縣 星主牧官 善山郡都護府 陝川郡 金山郡 高靈縣 軍威縣		尙州牧官 中牟縣 丹密縣 星主牧官 善山郡都護府 草溪郡(黃陶器) 金山郡 開寧縣 咸昌縣 龍宮縣 軍威縣	19個所
晉州道	晉州牧官 金海都護府 昌原都護府 咸安郡 昆南郡		晉州牧官 居昌縣	7個所
計	24個所	3個所	23個所	50個所

43) 『慶尙道地理志』, 「陶磁器 土產品物」條.

44) 『慶志』, 「土產品物」條.

그런데 『世宗實錄』 「地理志」와 『慶尙道地理志』 兩 지리지의 도자기소와 도자기 토산공물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전자에 도자기소가 있는 고을에는 후자에도 반드시 陶磁貢物이 기록되어 있고, 전자에 자기소만이 있는 고을에는 후자의 경우 磁器貢物만을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두 지리지의 자료가 서로 신빙성이 있다 보여지며, 거의 동년 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戶曹에서 그의 撰進을 지시한 내용으로 보아 地租, 貢賦, 및 搖役의 收納源을 道 단위로 확보하는데 그 근본목적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⑤ 『慶尙道續撰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는 『世宗實錄』 「地理志」 및 『慶尙道地理志』보다 약 반세기 후인 예종 원년(1469)에 찬술되었으며, 『世宗實錄』 「地理志」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즉 所在州郡縣別 品質의 上·中·下만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表 7].

[表 7] 『慶尙道續撰地理志』의 陶磁器所⁴⁵⁾

地域區分	慶州道				安東道				尙州道				晉州道				計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磁器所 品質	0	5	7	0	0	1	2	0	0	1	5	0	0	1	7	0	0	8	21	0
磁器所 小計	12				3				6				8				29(38)			
陶器所 品質	0	1	1	0	0	0	6	1	0	0	5	0	0	0	6	0	0	1	29	1
陶器所 小計	13				7				5				6				31(34)			
計	25				10				5				6				60(72)			

()안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경상도 소재 도자기소임.

『世宗實錄』 「地理志」와 『慶尙道續撰地理志』에 기록된 경상도 소재 도자기소의 수는 무려 12곳이나 차이가 난다. 즉 磁器所의 경우 전자에서 존재 했었던 38개소가 후자에서는 29개소로 9개소가 없어졌으며, 陶器所의 경우 전자에서 34개소이었던 것이 후자에서는 31개소로 3개소가 사라졌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도합 12개의 자기소가 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상의 자기소가 줄었음을 말할 나위도 없지만, 상품을 생산하던 자기소 또한 모두 없어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상·중·하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表 8].

[表 8] 『世宗實錄』 「地理志」와 『慶尙道續撰地理志』의 磁器所의 數量的 比較

區分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條 磁器所	『慶尙道續撰地理志』 磁器所
品上	3	無
品中	8	8
品下	27	21
計	38	29

위의 비교표에서 中品の 경우는 두 지리지가 모두 같다. 그러나 上品의 경우 『世宗實錄』 「地理志」에서 3개소이었던 것이 『慶尙道續撰地理志』에서는 전부 없어졌고, 下品の 경우 6개소가 없어졌다. 즉 上品을 생산했던 중모 지역의 2개의 자기소가 없어졌고, 노산리에 中品 단 1개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역시 上品을 생산했던 고령현의 경우 下品으로 격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으로부터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慶尙道續撰地理志』가 만들어지던 睿宗 元年(1469)에는 자기소인 中牟縣 蘆山里 中品, 도기소 尙州牧 西 伐乙夜里 下品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4]. 이것은 불과 몇 년 후에 만들어진 『東國輿地勝覽』에서 이 지역의 도자소에 대한 기록마저 찾아 볼 수 없다. 문헌기록의 검토 결과 『慶尙道續撰地理志』⁴⁶⁾가 만들어지던 睿宗 元年(1469)에서 『東國輿地勝覽』이 제작되던 成宗 17년(1486) 사이 어느 때인가 상주지역에서의 상품자기 제작은 중단되었다.

한편 中牟縣의 도자소는 수적증감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작되었던 도자기의 품질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1425년 『慶尙道地理志』에는 중모현의 토산으로 자기와 도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世宗實錄』 「地理志」의 자료찬진이 완료된 1432년(世宗 14) 이전에 활동이 중단되었고 자기소 한 곳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모현 도자소의 변화로 보아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 「地理志」가 만들어질 당시 이곳의 도자기 제작활동은 매우 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책에는 이곳에 거주하던 男丁의 數가 150口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425년부터 『世宗實錄』 「地理志」의 자료조사가 완료되던 1432년까지 7년의 기간에 한 곳씩이던 도기소와 자기소는 두 곳의 '상품자기소'로 변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口이던 남정의 수는 변화가 없다. 즉 도자기의 제작을 담당했을 男丁의 數가 변화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太宗代에 왕실용 자기를 생산하던 중모현이 世宗代

46) 『慶尙道續撰地理志』는 睿宗 元年(1469)에 편찬된 것으로, 『八道地理志』의 편찬에 필요한 지방 자료의 모음으로 제작된 것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의 편찬은 『地理志續撰事目』을 작성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항목은 모두 29개로 되어 있으며, 항목 중에 '陶器所 磁器所 某某處 品上中下'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다(鄭柱熙, 앞의 글, 125-127).

45) 『慶尙道續撰地理志』, 「土產品物」條.

에는 상품자기소의 개수를 늘렸지만 제작지의 규모를 거대화하여 기술인력을 늘이고, 제작체계를 조직화하는 등 중앙의 介入이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太宗 17년(1417) 12월에 '花器'가 歲貢의 형태로 各道에서 바쳐지고 있었고 中興현에서도 土産貢物로 바쳐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왕실소용기명을 제작할 때에 중앙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서 진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모현은 특정한 입지조건이나 수준 높은 제작기술을 갖춘 곳으로, 왕실의 감독과 수요에 따라 질의 고급화와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 전반에 상품의 자기를 생산하던 중모현이 15세기 후반이 되면 中品磁器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하였으며, 이것은 高靈과 南原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모현의 경우 이곳에서 만들어지던 자기에 대해 왕실에서 공급처를 바꾸었던 결과, 품질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들어서 왕실소용기명의 생산을 전담하는 또 다른 가마의 제작활동이 개시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측은 上品자기를 만들던 곳인 중모현의 楸縣里와 仁未隴里 두 곳의 기록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인 蘆山里로 기록되면서 질도 떨어져 中品자기를 일시적이거나 제작하다가 1481년 이전에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해진다.⁴⁷⁾

成宗 때의 金宗直(1431~1492)의 詩文集 25권 7책 『佔畢齋集』에는 先丈 金淑滋(1389~1456)가 世宗 24년(1442)부터 6년 동안 高靈縣監으로 재임하면서 沙器匠에게 沙器 만드는 九節之法을 가르쳐 歲貢白沙器의 질이 廣州·南原보다 훌륭했다고 적고 있다. 내용을 통해보면 1442년경에는 광주와 남원에서만 질이 좋은 자기를 생산했을 뿐,⁴⁸⁾ 『世宗實錄』, 『地理志』에 상품자기소로 기록되었던 '中牟'와 '高靈'의 자기는 앞의 두 곳과 비교의 대상도 되지 못할 정도로 질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世宗實錄』, 『地理志』(1424~1432)의 자료완성에서 1440년대 초에 이르는 약 15년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고령현은 김숙자의 부임(1442) 이후 한동안 광주나 남원을 능가하는 질의 백사기를 제작하였지만,⁴⁹⁾ 『慶尙道續撰地理志』(1469)에는 高靈縣의 자기소 두 개가 모두 下品으로

기록되어 있고, 中牟縣의 자기도 中品으로 질이 저하되는 등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 백사기의 질이 나빠진 것은 金縣監의 재임시기로부터 약 20여 년 후에 생긴 변화로, 15세기 후반에는 전반적으로 가마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이전에 上品磁器를 만들던 곳에서조차 자기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보인다.

이상에서 경상도 尙州지역을 중심으로 제작지의 증감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증감현상은 상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지역 도자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表 9].

[表 9] 慶尙道地方 窯址 數의 變化

區分	世宗實錄 地理志	減少數	慶尙道續撰 地理志	減少數	東國輿地勝覽
編纂	1424~ 1432	-	1469	-	1476~1481
磁器	37	12	25	21	4
陶器	34	2	32	30	1
沙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表 9]에서와 같이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이는 도자소는 이 책의 자료수집을 개시하던 시점인 1424년에서 『慶尙道續撰地理志』가 만들어지던 1469년 사이 약 40~50여 년 동안에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자기가마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慶尙道續撰地理志』부터 『東國輿地勝覽』이 만들어지던 1478~1486년의 약 9~15년 사이에, 자기가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기가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1470년대에 제작소의 감소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국에 산재해 있던 도자기 제작소가 급격히 몰락하게 된 원인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인 몇 개의 가능한 원인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15세기 중엽부터 본격 등장한 백자는 당시의 수요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조선조정에서는 백자의 수요와 생산이 늘자 君臣의 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사사로이 제작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였으므로 이것은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⁵⁰⁾

둘째, 경제적 태평과 함께 나라 안의 사치가 극심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士大夫·大臣·豪富·勳戚·貴近·閭巷⁵¹⁾의 小民·巨商·富賈⁵²⁾ 등 나라 안의 백성들이 중국산 청화백자를 밀수입하여 사용하고 이것이 커다란 국가적 문제로까지 부상하자 혼란의 극심함과 왕실의 친인척 등 고위층 사용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어

47) 전승창의 글, 34-35.

48) 『佔畢齋集』에서처럼 1440년대에 南原에서 질이 좋은 자기가 생산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世宗實錄』, 卷 116, 29年 閏 4月 戊辰條. "司憲掌令 李亨增啓曰 兵曹判書李宜爲 開城府留守 給鋪馬三匹于知印黃在中 求表箋紙與白磁器於全羅道…… 在中曰 初費綿紬三匹而去 買得表箋紙二十張 其餘則乃全羅監司節制司南原府使等所贈油皂鞍籠白磁器等物也…… 竟只 罷其職 宣母太祖後宮出也……"

위의 기사는 세종 29년(1447) 개성부유수가 전라도에서 백자기를 구해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世宗實錄』, 『地理志』(1424~1432)에는 南原都護府 府北阿山里(中品)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집필재집』의 내용(1440)에서도 京畿道 廣州(世宗代의 上品磁器所)와 함께 훌륭한 사기를 공물로 바치던 곳으로 꼽히고 있어 당시 남원에서 생산되던 백사기의 품질은 매우 질이 좋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49) 世宗 27년(1445)에 都巡察使 金宗瑞가 高靈縣에 들렀을 때, 金淑滋와 함께 한자리에서 검반에 놓인 白砂器를 가리키며, 金宗瑞는 "貴縣白砂器 甚善甚善 言至再三"라고 하였다.

50) 『世宗實錄』, 卷 39, 12年 6月 丙午條.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燒造者外 自今公私 買得用之 違者竝工人 以制書有違律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51) 村里·洞內·民間·閭里. [張三植, 『漢韓大辭典』, 三省出版社, 1841, (1989)].

52) 富商. [張三植: 漢韓大辭典, 三省出版社, 57, (1989).]

려움 등을 소원하는 내용을 적은 기사가 1470년대인 成宗代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⁵³⁾

셋째, 이전에 금속원료의 부족으로 銅器使用을 강력히 규제하던 것과는 달리 15세기 후반 銅錢通貨策 등의 실패로 국가의 금속원료에 대한 수요가 줄고 사용규제가 완화되면서,⁵⁴⁾ 이전과 같이 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 할 강제성이나 당위성이 상실되었고 상대적으로 官과 民의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京畿道 廣州一帶에 백자생산을 위한 官窯가 만들어져 국가에 의해 운영되면서 관아와 왕실소용의 기명들을 이곳으로부터 조달받았기 때문에 地方貢物로서의 분청사기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 그 수명이 다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가마는 단지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전락하여 소규모화하여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⁵⁵⁾

그런데 『世宗實錄』 「地理志」와 『慶尙道地理志』의 도자기소와 도자기토산공물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전자에 도자기소가 있는 고을에는 후자에도 반드시 陶磁貢物이 기록되어 있고, 전자에 자기소만이 있는 고을에는 후자의 경우 磁器貢物만을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두 지리지의 자료가 서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거의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戶曹에서 그의 撰進을 지시한 내용으로 보아 地租, 貢賦, 및 搖役의 收納源을 확보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⑥ 『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勝覽』은 1476~1481년 사이에 만들어진 『東國輿地勝覽』에서는 각 주·군·현별로 자기·도기·사기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경상도지방의 가마數의 변화에는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4곳, 도기 1, 사기 1이라고 되어있으며, 尙州牧의 도자소의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는 삭제되어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의 기록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세종년간에는 전국 각 주·군·현 324개소에서 토산공물로서 도자기를 수납하였음에 비하여, 세종 6년(1424)~성종 17년(1489)까지 65년이 지난 성종년간에서는 겨우 47개소에서만 생산·수납하였다.

53) ①『成宗實錄』, 卷55, 6年 5月 庚申條. “……今觀士大夫之家 日事侈麗 爭相誘美 以其甚者言之 大小宴集 非畫器不用…夫畫器 上國所產 馱載爲難 而家家有之 使臣之行 禁令雖嚴 以冒法如是……”, ②『成宗實錄』, 卷77, 8年 閏2月 辛亥條. “……靑畫磁器已禁用 但大臣戚里好用之 本府禁亂吏 豈得發摘乎 請申飭禁止……”, ④『成宗實錄』, 卷77, 8年 閏2月 壬子條. “傳旨議政府曰…比聞 勳戚貴近先自毀法 閭巷小民亦相率而侈靡 其中巨商富賈繼情無忌習以爲俗至如畫磁器非土產也 而求買上國 其不畏邦憲如此……”.

54) 이후에도 金銀器에 대한 사용규제는 지속되지만, 銅器에 대한 규제는 점차 완화되었다. 『世宗實錄』 卷 117, 29년(1447) 7월 29일에 “六典에 구리그릇을 부어 만드는 것을 금하여 그 법이 심히 엄한데, 이는 錢幣를 興用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같이 한 것이었으나 이제 楮貨를 다시 쓰게 하였으니 私私로이 그릇만 드는 禁法을 宥추라”고 하고 있다.

55) 姜敬淑, 앞의 글, 659 참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 65년이란 기간 동안 “한편에서는 토산공물의 형태가 현물에서 米·布 등 素材貨幣로 변형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방 도자기소의 경영형태가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⁵⁶⁾

이러한 경영형태의 변질은 경기도 광주자기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와서 남은 上品의 자기를 생산하던 광주목 토산조에 “土產磁器品上 每歲 司饗院 官率畫員 監造御用之器”⁵⁷⁾로 기록하고 있다. 즉 每歲 사용원 소속관원이 畫員을 데리고 와서 御用之器를 監造한다는 뜻이다. 이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이 찬술되기 전 광주자기소가 국·관영적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방의 각급 도자기소와는 그 경영형태가 다르며, 사용원 소속관원이 직접 그 생산요소를 조달시키는 한편 燔造과정에도 참가하여 어용자기를 생산케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영이라 함은 생산요소에 있어서 官人이 직접 개입한 분원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중앙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경기도 광주자기소는 세조년간(1456~1468) 이래 서서히 그 경영형태가 변질되기 시작하여 성종년간에 이르러서는 국·관영적인 성격을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표는 전국 도자기 토산품물 수납 비교표이다[表 10].

[表 10] 『東國輿地勝覽』의 全國 陶磁器 土產品物 收納比較表

品目 區分	瓷器					沙器					陶器					府郡 牧縣		
	府	郡	牧	縣	小計	府	郡	牧	縣	小計	府	郡	牧	縣	小計			
道別	京	-	-	1	4	5	-	-	-	1	1	1	-	1	6	8	14	10
	忠	-	1	1	5	7	-	-	-	1	1	-	2	1	-	3	11	9
	慶	-	-	1	3	4	-	-	-	1	1	-	-	-	1	1	6	5
	全	2	-	1	7	10	-	-	-	1	1	-	-	-	-	-	11	11
	黃	1	2	-	-	3	-	-	-	-	-	-	-	-	-	-	3	3
	江	-	-	-	1	1	-	-	-	-	-	-	-	-	-	-	-	1
威	-	-	-	-	-	-	-	-	-	-	-	-	-	-	-	-	-	-
平	1	-	-	-	1	-	-	-	-	-	-	-	-	-	-	-	1	1
計	4	3	4	20	31	-	-	-	4	4	1	2	2	7	12	47	40	

3. 結論

朝鮮時代 前期는 靑磁, 粉靑沙器, 白磁, 象嵌白磁, 靑畫白磁 등 여러 종류의 磁器가 제작되었으며, 『世宗實錄』 「地理志」가 편찬되고 司饗院의分院이 설치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더욱이 조선왕조로 교체되는 격변의 상황까지 겹쳐 강진의 窯業은 폐요되었고, 강진에서 종사하던 장인들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지역의 하나가 상주의 증모현 已未隈里와 湫縣里(세종 당시의 지

56) 權丙卓: 『傳統陶磁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學校 出版部, 203-204, (1993).

57)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牧條.

명, 현 모동면)이다. 또한 性理學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백자제작에 필요한 원료의 조건을 갖춘 곳의 한 곳이 경상북도 상주지역이었으므로 강진의 장인들이 이곳으로 이동했으리라 사료된다.

세종의 명에 의해 1424~1432년 사이에 기초 자료 조사가 이루어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8도의 자기소 139개소와 도기소 185개소가 기록되어 있고, 尙州의 楸縣里와 卮末隈里 2개소가 조사되어 있어 전국의 상품자기 생산의 절반을 상주에서 생산하였던 곳이다.

상주는 소백산 변성암복합체지역에 해당하며 구성광물은 도자기 제조에 필수적인 석영, 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는 도자원료 확보에 친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주의 도자생산의 역사적 배경의 사료로는 『高麗史』, 『太宗實錄』,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등이 있다. 『高麗史』에는 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12세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太宗實錄』에는 경상도 상주의 중모, 화령 등의 특정지역을 열거하면서 왕실소용기명 제작을 위해 중앙에서 감독관이 파견된 기록으로 보아 15세기 초의 상주의 자기 제작상황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추현리와 이미리리를 언급하면서 상주의 자기제작의 위상을 짐작하는 기록이 언급되면서 전국의 상품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慶尙道地理志』에는 상주가 8곳으로 1/3의 자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慶尙道地理志』에는 『世宗實錄』 「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世宗實錄』 「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중·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東國輿地勝覽』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 지방관아와 서민들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전락하여 소규모화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史料

- 『世宗實錄』 「地理志」
- 『新增東國輿地勝覽』
- 『商山誌』 (宣祖38年:1605)
- 『慶尙道地理志』
- 『慶尙道續撰地理志』
- 『高麗史節要』
- 『東國輿地勝覽』
-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55~1963.

單行本

- 權丙亨, 『傳統陶磁器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 姜萬吉,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4.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2), 1988.
- 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 ,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 ,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 京畿道博物館,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2001.
- 宋在旒,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東文選), 2003.
- 최건, 장기훈, 『조선관요박물관 도자문화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5.

論文

- 金鎮鳳,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研究』 제22호, 1972.
-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I)」, 『歷史學報』 제69집, (歷史學會), 1976.
- 金玉根, 「朝鮮王朝 財政史研究-歲入構造分析-」, 『경제사학』, 1981.
- 元慶烈, 「朝鮮時代 初期 慶尙道地域의 土産物分布에 대한 地理的 考察」, 『春川教大論文集』 22, 1982.
- 尹龍二,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陶器所에 관하여」, 『第27回 全國史學大會發表要旨』, 1984.
- 姜敬淑, 「分院成立時期小考」, 『美術史論叢』, (通文館), 1988.
- ,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忠清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02, (韓國美術史學會), 1994.
- ,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 5, (忠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1997.
- , 「初期 粉靑沙器 가마터 분포에 관한 一考察(I)」, 『泰東古典研究』 제10집, (泰東古典研究所) 1993.
- ,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미술사연구』 제12호, (미술사연구회), 1998.
- ,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京畿道博物館), 2001.
- 全勝昌, 「15世紀 朝鮮粉靑沙器·白磁의 移行研究」, 弘益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4.
- , 「15世紀 陶磁所 考察(I)-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 1號, 1996.
- , 「朝鮮前期의 白磁전접시 考察」,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 2號, 1997.
- ,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수요와 製鍊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 제 12호, (미술사연구회), 1998.
- 田勝昌, 「15世紀 陶磁所 考察(I) -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 1호, 1996.

權素玄, 「朝鮮 15世紀 象嵌白磁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金英媛, 「朝鮮時代 窯業體制의 變遷」, 『美術資料』 제66호, (국립중앙박물관), 2001.

圖 錄

『世界陶磁全集 19 - 』, (小學館), 1992.

『世界陶磁全集 18 - 高麗』, (小學館), 1993.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11 - 朝鮮王朝』, (小學館), 1999.

湖巖美術館, 『粉靑沙器名品展-湖巖美術館 所藏』, 1993.

—, 『湖巖美術館名品圖錄 I - 陶磁器』, 1996.

—, 『粉靑沙器名品展 II - 한국미의 원형을 찾아서』, 2001.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와 지방백자』, 2005.

日 文

奥田誠一, 「朝鮮時代の陶磁について」, 考古學雜誌 3-11, 大正 2(1913).

淺川伯教, 「李朝陶器の價値及び變遷に就いて」, 『白樺』 9, 1922.

淺川伯教 編, 「李朝陶磁窯跡一覽表」, 『世界陶磁全集』 14 李朝, 座右寶刊行會, 東京: 河出書房, 1956.

淺川伯教, 『李朝の陶磁』 東京: 座右寶刊行會, 1957.

淺川伯教 著·小山富士夫 監修, 『陶器全集』 17 李朝, 東京: 平凡社, 1960.

劉宗悅, 「李朝陶磁の美とその性質」, 『民藝』 83, 昭和 34(1959).

林屋晴三 著·小山富士夫 監修, 『陶器全集』 18 李朝 染付·鐵砂·白磁, 東京: 平凡社, 1960.

藤岡了一, 『陶器全集』 11 元·明初の染付, 東京: 平凡社, 1960.

藤岡了一, 「明初の磁器」, 『世界陶磁全集』 14 明, 東京: 小學館, 1976.

出光美術館, 『元·明の陶磁』, 東京, 1978.

—, 「近年發見の窯址出土中國陶磁展」, 東京, 1982.

中 文

國立故宮博物院, 『明代初年瓷器』, 臺北, 1982.

陳昌蔚 編著, 『中國陶瓷』 4 明代瓷器, 臺北: 光復書局, 1980.

英 文

Kim, Chewon and Kim, Wonyong, The Art of Korea: Ceramics, Sculpture, Gold, Bronze and Lacquer, London, 1966.